

実技課題文 1

2018 년 한글날을 맞이하여 한글문화연대가 발표한, 훈민정음 협찬설로 기술한 역사 교과서의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역사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게 한다.

(中略)

역사 교과서들이 이와 같이 대부분 협찬설로 기술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다는 사실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교과서 저자들은 최고의 역사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세종실록이나 『훈민정음』(1446)와 같은 기본 사료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을, 역사 분야 최고 전문가들인 교과서 저자들이 저지른 실수라 더욱 문제가 된다.

필자는 “김슬옹(2017). 『한글혁명』. 살림터. 40 쪽”에서 협찬설은 ‘-설’조차 성립하기 어려운 매우 불합리한 의견이라고 못을 박았다. 현재 활동 중인 훈민정음 전공 학자 가운데 협찬설을 지지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 그런데 이런 판단은 훈민정음 전공과 상관이 없다. 요즘 조선왕조실록 번역 누리집(<http://sillok.history.go.kr>)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가. 번역이 직역 위주라 어렵기는 하지만 초등학생도 검색을 통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훈민정음』(1446)도 한문본이긴 하지만 필자가 초등학생조차 한자, 한문을 읽어낼 수 있게 만든 “김슬옹(2017/2018: 증보개정). 『훈민정음 해례본 입체 강독본』. 박이정.”를 보면 역시 금방 확인할 수 있다. 협찬설을 입증하려면 세종실록과 『훈민정음』 해례본이 위서임을 입증하거나 “김슬옹(2005). 『조선시대 언문의 제도적 사용 연구』. 한국문화사.”에서 최초로 모두 찾아낸 훈민정음 관련 기록이 문제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필자는 그간 여러 논저에서 세종 친제설을 언급해 왔다. 세종을 영웅화하려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역사 사실을 부정하는 이들이 많아 안타까워 그랬다. 이번 발표에서는 협찬설을 초점으로 다시 정리하면서 논지를 더 강화시켜 보려 한다.

물론 훈민정음 협찬론을 부정하고 친제론을 강조한다고 해서 세종이 모든 것을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창제 과정은 비밀 과정이었지만 집현전 학사들의 학문적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세종이 임금인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대천제성을 타고 났다 하더라도 창제 추진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임금으로서 창제까지의 간접 도움, 반포까지의 직접 도움을 받았다는 논리보다도 한문으로 집약되고 상징되는, 중국과의 절대적 사대 관계,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대부들의 거대한 정치 권력을 넘어선 것이 더 큰 기적이었고 더 강한 논리라는 것이다. 2 장에서 양반 사대부들의 한자 절대주의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後略)

(김슬옹 「훈민정음 창제 협찬설의 허구성」 세종대왕 즉위 600 돌 기념 학술 강연회講演錄 『훈민정음,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

実技課題文 2

諺解が生まれた背景には、ハングルの制定と普及、朱子学の国教化以外に、もうひとつの重要な事実がある。それは中国語の口語の流行である。中国と地続きの朝鮮では、古くから中国語の学習が行われていたと思われるが、特に高麗王朝末期、当時ユーラシア大陸を席卷したモンゴルの元朝に服属して以来、両者の関係は緊密となり、官僚、商人、僧侶など多くの高麗人が中国との間を往来するようになった。そのため 1276 年には、中国語の通訳養成の目的で通文館が設置され（後に司訳院と改名）、また『老乞大』『朴通事』など、当時の中国語会話を学習するための教科書も編纂される。

この体制は次の朝鮮王朝にも受けつがれ、司訳院では中国語のほか、モンゴル語、女真語（満州語）、日本語の通訳を養成した。中でももっとも重要だったのは、いうまでもなく中国語であり、当時の明朝との外交関係を円滑に運ぶため、通訳官だけではなく、多くの官僚も中国語を学習し、また『老乞大』『朴通事』の改訂版やハングルによる翻訳、諺解も作られた。このような中国語学習の過程で、漢文を従来のような訓読で読むことにあきらまず、直接原文によって理解しようとする気運が生じるのは当然であったろう。そこから一方では原文をそのまま音読によって直読し、他方で理解を助けるために朝鮮語の翻訳をつけるという諺解方式が生まれたのである。

（金文京『漢文と東アジア』）